

재조일본인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郎]의 '신일본(조선)' 건설론

최혜주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교수

I. 머리말

개항 이후 일본의 조선 진출은 정부·군 관계자, 실업가, 언론인, 정치단체 등 다양한 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인들의 도한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20년에는 40만 명, 패전 시에는 약 8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에 관한 정보와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내한한 이후 줄곧 조선에서 생활하며 조사·연구 활동을 한 재조일본인의 존재에 대해 주목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 일본이 개항 이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승리하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조선 사정을 조사했는지 밝혀보려는 연구의 일환이다. 이 연구가 필요한 것은 근대 일본인의 조선 사정 조사와 안내서에 대한 고찰이 당시 일본의 조선 인식을 비롯하여 대외사상, 대

외침략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의 하나기 때문이다. 자기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식민정책을 비판하거나 식민지 지배에 협조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일본인들의 내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들과 식민지 지배정책과의 관련을 밝힐 수 있다. 나아가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이하 재조일본인)의 활동 실체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해가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재조일본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거류민의 조직과 활동, 조선으로 이주하게 된 일본 측 배경 및 개항장 내 일본인 거류지의 양상을 설명해주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¹⁾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제국사 연구가 유행하면서 2000년대 이후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재조일본인에 관한 연구들이 정치, 사회, 경제, 여성, 교육, 언론, 재조일본인 2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²⁾

이 논문과 관련한 연구 성과는 개항 이후 1910년대에 걸쳐 일본인이 내한하여 조선 사정을 조사하고 간행한 출판물의 성격을 시기적으로 검토한 기초연구가 있다.³⁾ 여기서는 개항 이후 일본인이 간행한 조선 사정 관련 출판물 100여종을 조사하여 그 경향을 분석했다. 그러나 중요저술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오야기 쓰나타로(1877~1932)에 대한 연구가 처음 나온 것은 먼저 일본에서 이마니시 하지메[今西一]가 1920년대의 동화론을 다루면서 아오야기와 데라우치 총독의 동화론 대담을 소개한 글이다.⁴⁾ 한국에서는 아오야기의 내한경위와 조선사 저술을 분석하여 그것이 식민사학의 원형임을 밝

1) 손정목, 1982,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 연구-개항장·개시장·조계·거류지』, 일지사.

2) 이형식, 2013, 「재조일본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학』 37.

3) 최혜주, 2012, 12, 「개항 이후 일본인의 조선사정 조사와 안내서 간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3; 최혜주, 2013, 6, 「1900년대 일본인의 조선이주 안내서 간행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최혜주, 2014, 12, 「1910년대 일본인의 조선이주 안내서 간행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

4) 今西一, 1997, 1, 「帝國'日本'の自畫像-1920年代の朝鮮'同化'論」, 『立命館言語文化研究』 8(3).

히고, 아오야기의 식민통치론을 다룬 최혜주의 논문이 있다.⁵⁾ 이 연구는 아오야기가 1901년에 내한하여 30여 년간 어용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에 관한 사정 조사와 연구, 저술에 독보적인 역할을 한 인물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과 저술이 가능하게 된 식민사상의 형성배경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고, 그의 조선 관련 단행본 30여 권⁶⁾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아오야기의 저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의 활동을 조명하고 식민사상과 식민통치론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 아오야기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이유의 하나는 그가 재조일본인 중에서도 식민 당국 상층부에 통치책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대일본주의'로 사상 무장을 철저히 한 인물로 '대일본주의'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아오야기의 조선관이 형성된 사상적 배경을 출생지와 교육을 통해 살펴보고, 다음 아오야기가 식민지 조선에 '신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겼는지 분석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아오야기가 식민정책을 비판하며 그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 이주 식민론과 '대일본주의'의 실현에 대해서 검토하여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본다.

-
- 5) 최혜주, 2000, 「아오야기의 내한활동과 식민통치론」, 『국사관논총』 94; 최혜주, 2006, 12, 「일제강점기 아오야기의 조선사연구와 내선일가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 6) 『韓國農事案内』(1904), 『濟州道案内』(1905), 『南韓之實業』(1906), 『韓國植民策』(1908), 『日韓史蹟』(1910), 『朝鮮宗教史』(1911), 『豊太閤征韓戰記』(1912), 『李朝五百年史』(1912), 『新撰京城案内』(1913), 『最近京城案内記』(1915), 『朝鮮四千年史』(1917), 『總督政治』(1918), 『朝鮮美人寶鑑』(1918), 『不老不滅의靈法』(1918), 『鮮鐵沿線名所史蹟美術大觀』(1919), 『珠淵選集』(1919), 『朝鮮獨立騷擾史論』(1921), 『朝鮮三綱錄』(1921), 『李朝史大全』(1922), 『朝鮮統治論』(1923), 『朝鮮文化史』(1924), 『朝鮮文化史大全』(1924), 『百歲長壽法』(1924), 『産業의朝鮮』(1925), 『新朝鮮』(1925), 『大京城』(1925), 『朝鮮史話と史蹟』(1926), 『朝鮮國寶的遺物及古蹟大全』(1927), 『總督政治史論』(1928), 『大日本史談』(1929), 『豊太閤朝鮮役』(1930), 『赤裸裸に見た内鮮史論』(1935) 등이다.

II. 아오야기의 조선관 형성의 배경

1_사가현 출생과 조선관 형성

아오야기는 1877년 3월 14일 사가[佐賀]현 사가[佐賀]군 나베시마[鍋島]촌에서 태어났다. 사가현은 규슈의 북서부에 있는 지방으로 고대 사가현과 나가사키현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며 히젠국[肥前國]으로 불렸다. 아오야기가 태어난 사가현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곳이며 그가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자.⁷⁾

먼저 사가번의 변조는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1538~1618)다. 그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1562~1611) 장군 휘하의 장수로 참전한 인물이다. 1592년 조선 침략의 본대인 가토 기요마사보다 많은 1만 2천 명을 이끌고 참전했다. 1597년 정유재란 때에 다시 경상도 함양의 황석산성 전투에 참전했고, 제1차 울산성 전투에서는 기요마사를 구원하기 위해 편성된 8만 명 구원병의 총사령관으로 조명(朝明) 연합군을 무찔렀다. 이후 일본에 돌아와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편을 들었고 1608년 사가성을 수축했다. 그는 사가번의 기초를 세우고 이삼평(李參平) 등 조선의 도공을 납치해 아리타도자기[有田燒]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아오야기는 고향인 사가번의 흥학에 크게 공헌한 인물로 조선의 전쟁 포로 소년 홍호연(洪浩然, 1582~1657)을 들고 있다. 자신의 유고집 『적나라하게 본 내선사론[赤裸裸に見た内鮮史論]』(1935)에서 홍호연을 ‘내선동화(内鮮同化)’의 표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7) 사가현의 조선 포로 홍호연에 대해서는 小宮陸之, 1996, 「洪浩然と佐賀縣」, 『研究紀要(2)』, 佐賀縣名護屋城博物館; 浦川和也, 2008, 「洪浩然と洪家の系譜-洪浩然 洪家史料の目録と解題」, 『研究紀要(14)』, 佐賀縣名護屋城博物館; 노성환, 2010, 「일본 사가의 조선포로 홍호연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73.

홍호연은 1593년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진주성을 공격할 때 산음(현재 산청군)에서 포로로 잡혀간 12세 소년이었다. 그가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큰 붓을 들고 있었기에 나베시마의 눈에 띄어 사가번으로 데려갔다. 사가번에 살면서 사가번주와 아들 가쓰시게에게서 영지와 학비 지원을 받아 경사오산(京師五山)⁸⁾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돌아와 번의 기록 등을 기술하는 서기로 중용되고 주군을 곁에서 모시는 긴지[近侍]가 되었다. 홍호연은 번사의 총애로 문재를 인정받아 그의 딸과 결혼했다. 그의 신분은 나베시마번에서 시분[士分](사무라이의 中席)으로 포로의 신분에서 발탁되어 백 석을 받을 만큼 학문과 인물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는 70세에 조선으로의 귀향을 시도했지만 자신이 모시던 영주 가쓰시게가 죽자 그를 따라 할복자살하여 자신의 후손을 지켰다.⁹⁾ 홍호연 가문의 후손들은 사가번의 홍학에 진력하여 공적을 세우고 주자학을 일으켰으며 막말의 사가인들 가운데 근왕의 열사(烈士)와 명군 나베시마 나오마사[鍋島直正](1814~1871)를 배출했다.¹⁰⁾

이처럼 아오야기는 에도시대 규슈지역에서 살면서 조선의 주자학과 서적, 도예, 활자 기술 등을 통해 문화의 꽃을 피운 조선인 후예의 활약상에 대해 평가하면서 일본인들이 조선 학계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¹¹⁾ 그는 일본 주자학의 연원이 조선에서 끌려간 사람들이며 그것이 일본의 무사도 정신과 섞여서 꽃을 피웠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이 그가 사가현에서 태어나 조선의 문화와

8) 교토에 있는 임제종의 5대 사찰로 天龍寺, 相國寺, 建仁寺, 東福寺, 萬壽寺를 가리킴.

9) 靑柳綱太郎, 1935, 『赤裸裸に見た内鮮史論』, 4. 歸化人洪浩然の傳, 115~119쪽.

10) 靑柳綱太郎, 1935, 위의 책, 5. 洪浩然の六代孫洪晋城の傳, 127~128쪽.

11) 靑柳綱太郎, 1935, 위의 책, 11. 徳川時代内鮮敎學の同化, 朱子學の融合と日本武士道, 139~140쪽. “이와 같이 우리 일본에서 주자학의 연원은 朝鮮役に 의해 강제로 귀화한 사람과 그의 자손 사가번사 홍진성, 히고[肥後, 지금의 구마모토현] 번사 김씨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주자학의 참 정신이 우리 일본 고유의 무사도와 섞여서 사쿠라 꽃이 활짝 피듯이 일본 안에 경쟁적으로 피고 이에 따라 대의명분을 환발하여, 유신의 대정변이 발발한 것은 아마도 조선의 학계에 신세진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상에 관심을 갖고 나중에 조선에 건너가서 활동하게 되는데 크게 작용을 했으리라 여겨진다.

다음 사가변은 메이지유신의 주요 세력인 서남 웅번(雄藩) 중에 다른 번에 비해 뒤늦게 참가하여 그 공이 적었던 번이다. 사가변 출신 가운데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1828~1905)와 에토 신페이(江藤新平)(1834~1874)는 1873년 10월의 정한론정변에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1828~1877)와 함께 정한론을 주장하다 관철되지 않자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1838~1897),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1837~1919)와 함께 참의직을 그만두고 하야하게 된다.

근대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이전의 막부체제를 일소하고 중앙집권화 정책을 위해 판적봉환과 폐번치현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무사계급의 대부분은 실직하고 겨우 2만여 명만이 관리로 등용되었다. 무사는 사족이라는 칭호만 받았을 뿐 이전까지 보장받아 왔던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다.¹²⁾ 이에 사족들은 1873년 10월의 정한론정변 이후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난을 이끈 에토 신페이와 시마 요시다케(島義勇)(1822~1874)는 본래 불평 사족을 달래기 위해 사가로 향했던 것이지만,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따라 결기하게 된 것이었다. 에토가 목표로 했던 사가에서 일어나면 주변 사쓰마현의 사이고 등 각지의 불평사족이 뒤를 이을 것이란 예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사가현은 정한론을 주장하는 호전적인 지방이었고 이 움직임은 나가사키나 후쿠오카로 파급되어 규슈 전체가 정한의 분위기에 젖어들었던 것이다.¹³⁾

이와 같이 아오야기는 이전부터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가현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공부하여 조선의 학문을 익히고 조선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 그의 동생 도지로(藤次郎)도 대전에서 의사를 하며 재조일본인으로 활동할 정도로 조선과는 관련이 깊었다.¹⁴⁾ 또한 메이지유신 이후 불평사족들이

12) 메이지유신에 대해서는 박훈, 2014,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사.

13) 전상균·박중현, 2001, 「'정한론'과 佐賀의 난」, 『일본어교육』 18, 239~253쪽.

14) 조선총독부 관보 제618호와 658호에 따르면 아오야기 도지로는 1914년 8월 22일

정한론을 주장할 때 그 선봉이 된 중심 지역이었던 사가현에서 정한의 분위기를 몸소 익히며 성장했다. 이런 사상적 배경이 뒷날 그가 조선 역사에 관심을 갖고 도한하여 통감부에 근무하며 조선 자료를 정리하고 역사를 왜곡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¹⁵⁾

2_ 데쓰가쿠칸[哲學館] 수학과 국제론 형성

아오야기는 사가시에 있는 간쇼학사[畵咀學畵]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1899년에 데쓰가쿠칸(지금의 도요[東洋]대학)에 들어갔다.¹⁶⁾ 그는 조선의 주자학이 꽃을 피워 조선학에 대한 학문적 열기가 왕성하던 나베시마촌(1954년 사가시에 편입)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학문적 분위기에 익숙하였고 간쇼학사에서 한학을 배우게 된 것이다. 간쇼학사는 유학자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사숙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아오야기가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한학을 배웠는지 자료에 남아 있는 것이 없어 궁금하다. 나중에 조선에 와서 많은 문헌을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저술 작업에 종사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때 상당한 한학의 교양을 배우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¹⁷⁾

의사면허를 받고 10월 10일부터 개업의사로 대전에서 활동하였다.

- 15)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보충한 뒤에 후속 연구로 작업할 예정이다.
- 16) 민중시론사, 1935, 『朝鮮功勞者明鑑』; 조선중앙경제회 편, 1922, 『京城市民明鑑』; 東洋大學, 1925, 『東洋大學一覽』.
- 17) 靑柳綱太郎, 1928, 『總督政治史論』, 武斷政治時代, 제26편 寺內伯の内鮮人同化論, 275쪽. 아오야기의 한학 공부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당시 아오야기가 데라우치 총독의 관청을 드나들며 정치현안에 대한 대담을 하던 중 스기야마 다카토시[杉山孝敏]가 데라우치를 방문한 사실을 기록한데 나온다. 아오야기는 “스기야마 선생은 옛날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마쓰시타 손주쿠[松下村塾] 출신으로 궁내부 촉탁이 되어 경성에 와 계셨다. 불초는 사제의 관계를 맺고 있다. 선생은 支那문학 연구의 은사였다. 데라우치 총독도 당시 선생에게 매일 밤 『논어』와 『좌전(左傳)』의 강의를 듣고 있었다.”고 적었다. 스기야마는 요시다 쇼인에게 배운 뒤 문부성의 관료를 지내고 데라우치와는 같은 고향인 야마구치 출신으로 그에게 사서삼경을 강의한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기야마가 경성에 온 것은 그의 사위가 궁내부 차관을 지낸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였기 때문에 궁내부 촉탁으

데쓰가쿠칸은 이노우에 엔료(井上圓了)(1858~1919)가 교육자와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해 1887년 9월 도쿄의 혼고구[本郷區] 다쓰오카마치[龍岡町] 31번지에 있는 린쇼인[麟祥院]에 설립한 학교다. 린쇼인은 임제종 묘우신지[妙心寺]파의 사원이다. 아오야기가 나베시마촌에서 한학을 배운 뒤 도쿄의 데쓰가쿠칸으로 진학하게 된 계기나 목적은 분명하지 않다. 사가 출신으로 유명한 ‘사가 7현인’의 한 사람인 소에지마 다네오미의 영향이 아닐까 추정된다. 소에지마는 참의와 외무경, 내무대신을 지냈으며 1873년 정한논쟁이 일어났을 때 내치 우선파에 밀려 정한론이 반대에 부딪치자 사임한 인물이다. 그는 데쓰가쿠칸이 설립되자 물심양심으로 이노우에 엔료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그리고 아오야기는 조선 문화와 상고시대 이래 양국의 역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노우에의 ‘호국애리(護國愛理)’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일본주의 정신에 따라 세워진 이 학교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노우에는 데쓰가쿠칸의 창립 목적을 “문과대학의 속성을 기하여 널리 문학, 사학, 철학을 교수하는데 있지만, 그중 교육가, 종교가를 양성하는데 있으며, 그 방침은 교육 방면은 일본주의를 취하고 종교 방면은 불교주의를 취하는 것이다. 내가 교육상 일본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아국이 이미 당당한 독립국으로 서양 제방의 속국이 아니며, 우리는 일본의 국민으로 구미 제방의 신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 국민인 이상은 이 나라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나라를 유지하는 데는 일본 고유의 정신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당시 아방의 제 고등학교의 서양주의를 취하는 것을 반대하여 일본주의를 취하고, 가르칠 때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교사도 결코 서양

로 부임한 것이다. 이처럼 아오야기가 스기야마에게 사서삼경 강의를 들은 것은 그가 경성에 와서 체재하던 중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 18) 東洋大學, 1937, 『東洋大學創立五十年史』, 제2장 沿革史, 제1절 私立哲學館時代, 18~19쪽. 이 밖에도 石黑忠憲, 勝安房, 近衛篤麿, 山縣有朋, 後藤象次郎, 吉井友實, 芳川顯正, 陸奥宗光, 谷干城, 千家尊福, 細川潤次郎, 何禮之, 重野安繹 등이 있다.

인을 쓰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¹⁹⁾

즉 데쓰가쿠칸은 “교육은 일본주의, 종교는 불교주의”를 내걸고, <교육칙어>²⁰⁾의 취지를 실현하려고 설립한 3년제 학교다. <교육칙어>는 1890년 10월 30일에 메이지 천황의 명으로 발표된 칙어다. 그 내용은 역대천황이 국가와 도덕을 확립시켰다고 밝힌 후, 국민의 충성심과 효도심이 ‘국체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원’임을 규정한 것이다. 데쓰가쿠칸은 1898년에는 학제를 고쳐 종래의 교육학부와 종교학부를 교육학부 철학부의 2부로 했다. 다음해 예과 1년 본과 3년으로 하여 본과는 교육부와 철학부로 나누었다. 교육부를 윤리과, 한문과로 나누어 윤리, 교육, 국어, 한문, 철학, 역사, 영어, 체조 등을 교수했다.²¹⁾ 종래의 한학전수과는 한문과로, 불교전수과는 철학부에 각각 합병했다.

데쓰가쿠칸은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화에 대한 반동으로 국가사상과 일본주

19) 東洋大學, 1937, 위의 책, 제2장 제1절.

20) 메이지유신 이후 태평양전쟁 패전에 이르기까지 군국주의 천황제의 일본 교육의 방향을 결정지은 교육헌장이다. 내용은 신국관 및 천황신격관에 기초를 두고 가부장제 도덕의 덕목을 포함시켜 전쟁에 임해서는 헌신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재철, 1985,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21) 東洋大學, 1937, 앞의 책. 東洋大學의 학과개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년	제 2 년	제 3 년
正科	보통과	고등 하급	고등 상급
	논리학	물리 및 화학대의	논리학
	심리학	천문 및 지질학대의	동양철학사
	사회학	동물 및 식물학대의	근세철학사
	윤리학	생리학	심리학
	교육학	인류학	審美學
	순정철학	언어철학	윤리학
		역사철학	政理 및 법리학
		경제철학	종교철학
		동양철학사	設題論文
		희랍철학사	
副科	儒學	유학	유학
	佛學	불학	불학
	國學	국학	국학
	영어 혹은 독일어	영어 혹은 독일어	영어 혹은 독일어

의 수립이 치열하게 요구되는 시기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국체의 정화’를 발휘하는 것을 개교의 정신으로 삼았다. 이노우에는 이러한 정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도요대학 설립을 목표로 기금을 모으기 위한 강연회를 시작했다. 여기에서 “일본이 국세를 신장하여 동양의 패주 혹은 세계의 강대국이 되기를 바란다면, 가장 적당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도요[東洋]대학을 설립하여 우리의 손으로 동양학의 전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상의 전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치상의 전권을 장악한다면 동양의 패주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리하여 5년 동안 818회 강연을 개최하고 8천여 엔의 기금을 모아 1904년 데쓰가쿠칸을 데쓰가쿠칸대학으로 바꾸고, 2년 후에는 도요대학으로 개칭했다.²²⁾

이노우에는 「데쓰가쿠칸의 목적에 대한 의견」에서 일본의 인심을 유지하고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본주의²³⁾의 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학은 일본 고유의 학문인 신도, 유교, 불교 및 철학, 사학, 문학을 기본으로 하여 일본국의 독립, 일본인의 독립, 일본학의 독립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²⁴⁾

아오야기가 이 대학의 무슨 과에서 배웠는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1899년 입학하고 1901년에 퇴학했으며 9월에 『간문신보[關門新報]』의 통신원 자격으로 조선에 건너가게 된다. 그의 데쓰가쿠칸 수학기절은 이노우에의 국수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오야기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이노우에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 살펴보자. 이노우에는 1858년 니가타현에 있는 정토진종 오타니[大谷]파 사찰 지코지[慈光寺]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이웃 마을에 사는 의사 이시гур로 다다노리[石黒忠憲]에게 한학을 배우고 17세가 되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니가타학교에 들어갔다. 20세에는 교토에 있는 히가시혼간

22) 東洋大學, 1937, 위의 책, 제4장 學制, 255~260쪽.

23) 井上圓了, 1920, 「日本主義」, 『哲窓茶話』, 三星社書店, 132~135쪽.

24) 東洋大學, 1937, 앞의 책, 제2장 제1절, 28~29쪽.

지[東本願寺]의 교사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학교는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었다. 이듬해 그는 도쿄대학의 예비문(지금의 교양학부)에 입학하여 철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재학 중에는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하라 단잔[原坦山], 시마지 모쿠라이[島地默雷] 등과 함께 철학회를 만들어 『철학잡지(哲學雜誌)』를 발행했다.²⁵⁾

근대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서양의 문물을 급속도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당시에는 '구화주의(歐化主義)'가 유행하던 시기였다. 불교계는 신정부 주도의 폐불훼석(廢佛毀釋, 불교를 배척하여 절이나 불상을 부수는 것)으로 전국의 사원들은 폐멸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1880년대 후반부터는 메이지헌법 공포와 제국의회 개원, <교육칙어> 발표 등과 같이 근대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고 구화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국수주의가 발흥했다. 이노우에는 일본의 지나친 서구화, 특히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데 비판적이었다. 불교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해 대학을 졸업한 후 30세가 되는 1887년에 데쓰가쿠칸을 창설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구화 만능시대가 계속되어 사상계 역시 혼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노우에는 세이교샤[政教社]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기관지로 『일본인(日本人)』과 『국가학회잡지(國家學會雜誌)』를 간행하고, 신문·잡지 등에 국수보존·국민정신 진흥을 역설했다. 그는 제국주의 열강의 일본 식민지화를 우려하여 구미와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구미에 추종하는 것이 아닌 일본인의 주체를 서양철학에 의한 불교 재해석으로 추구했다.²⁶⁾

이노우에는 불교를 일본의 불교로 만들기 위해 불교개혁이 필수적이며, 불교의 입장과 배치되는 기독교에 비판적이었다.²⁷⁾ 이러한 국가주의와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동양학 계발은 데쓰가쿠칸대학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또한 그는

25) 齋藤繁雄, 1988, 『井上円了の西洋思想』, 東洋大學井上円了記念學術振興基金.

26) 송현주, 2014, 「“불교는 철학적 종교”: 이노우에 엔료의 ‘근대일본 불교’만들기」, 『불교연구』 41.

27) 원영상, 2011, 「근대 일본불교의 서양사상의 수용과 전개—井上円了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67.

천황제 유지를 위해 호국불교의 정신이야말로 일본 정신을 배양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강력한 천황제 국가를 옹호하며 천황제론의 정신적 기반인 국체론의 옹호자가 되었다. 국체론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한 이유를 천황가가 고대부터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존속해왔다는 점에서 찾는다. 이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통신화는 일본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속성을 갖는다.

이처럼 아오야기는 데쓰가쿠칸에서 이노우에의 사상과 학문적 영향을 받은 뒤에 조선으로 건너가서 활동했다. 같은 시기에 이 학교를 다닌 샤쿠오 슌조[釋尾春菴]가 있다. 샤쿠오는 오카야마[岡山]현 출신으로 이 학교를 1897년에 졸업했는데 아오야기는 샤쿠오가 졸업한 2년 후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샤쿠오는 1900년 내한한 재조언론인으로 『조선(朝鮮)』과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를 발행하여 식민통치에 협력한 어용언론인이다.²⁸⁾ 이노우에의 제자들이 식민지에 일본 제국주의를 건설하고 천황제를 침투시키기 위해 활약한 것이다.

III. 아오야기의 ‘신일본(조선)’ 건설론

1_부원(富源)개척론

아오야기는 ‘신일본’이란 조선인의 땅이라도 “일본인이 나가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한 천지는 즉 일본인의 신 고향”이라고 말한다.²⁹⁾ 아오야기에게 ‘신일본’이란 개념은 중요한 것이었다.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계기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아오야기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쓰가쿠칸을 퇴학한 뒤에 『간몬신보』의

28) 최혜주, 2005. 12, 「한말 일제하 샤쿠오(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 국민족운동사연구』 45.

29) 靑柳綱太郎, 1905, 『濟州道案内』, 제12편 外人布教, 隆文館, 85~86쪽.

통신원으로 내한하여 1903년에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의 특파원이 되어 남한 지역의 실업사정을 조사하였다. 이후 통감부의 통신속이 되어 전남 나주와 진도의 우편국장을 역임하였다. 우편국장을 그만두고 1907년 통감부의 재무관이 되기 전까지 『목포신문』 주필로 전라도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대한일보』 지상에 발표하였다. 그 결과는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신일본' 개념을 담은 『한국식민책』(1908)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한국 병합의 양책(良策)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오야기는 이러한 조사 집필과정을 통해 ‘신일본’ 건설은 일본의 경제적 발전의 단서가 되며 ‘이익선의 확장’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아울러 일본인은 ‘도국(島國)경영’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국운상에 장차 우리 민족상에 일신생면을 전개하려는 것은 우리 제국 필연의 운명이며 가까운 장래에 우리 국민이 발전지를 이 방면에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하여 ‘신일본’ 건설에 제국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강조한다.³⁰⁾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농사안내』(1904)를 저술하는 이유도 일본 농민의 이주로 인한 이익을 예측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국시인 ‘팽창적 일본’을 수립하여 한국을 경영근거지로 삼는 것이 최대 급무며 동양패권을 장악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제주도안내』(1905)를 저술하면서 “내가 절규하려는 것은 제국경제의 팽창책이다. 한반도의 부원을 개척하여, 경제적 팽창 국민의 신 지반을 건설하는 것은 어찌 각하의 최대급무가 아니겠는가. 내가 본서를 편저하는 미의(微意)는 실로 여기에 있다”³¹⁾고 말할 정도로 부원개척에 일본제국의 전도가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신일본’의 근거지로 주목한 제주도 경영과 유망한 사업에서의 부원개척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제주도 경영에서는 일본인의 개척사명론을 주장한다. 즉 “매우 먼 고도를 우리 일본인의 손으로 개척하고 평화를 유지하여 문화로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일본인 외에 경영 지도를 맡을 자가 없다면 아방인이 크게 고려

30) 青柳綱太郎, 1904, 『韓國農事案內』總論, 青山嵩山堂, 1~6쪽.

31) 青柳綱太郎, 1905, 앞의 책, 「例言二則」.

하는 바가 없어서는 안 된다. — 당국자의 지도가 적당함을 얻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경영에 대한 총독부 당국의 무관심을 질타하고 있다.³²⁾ 그러면서 일본은 지금 워털루 전승 후의 영국과 같이 동양의 패권을 장악할 호기인데도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 부원개척의 방법으로 제주도에 대어촌을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가 여기에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일 대어촌의 설비이다. 이것이 그 부원을 열고 근거를 고정시키는 최량 방책으로 제주도 경영의 제일 要義되는 것은 우리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그 어촌은 본방 어촌과 동일 시설을 하여 어부는 가족을 데리고 永住할 각오를 정하여 제2의 고향으로 도민과 함께 어울려 상조하고 농사의 발달, 목축의 개량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 이 하늘이 준 大寶庫는 지금 바로 야마토 민족의 鑰鑰를 기다리고 있다.³³⁾

라고 하면서 일본의 국익을 위해 제주도에서 개척 사업을 시작할 것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어업의 다음가는 사업으로 농업을 거론했다. 아오야기는 제주도에서 농업을 진작시켜 농업 경영의 면목을 일신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미개간지를 경지로 만들고 미맥(米麥) 이외에 목축, 양잠, 과수 등 적당한 농사를 경영하면 그 이익이 훨씬 증대할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에 일본의 과잉 인민을 이주시키면 10만 명의 동포를 수용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에는 눈앞에 먹을 식료조차 부족하므로 부원개척을 향해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좋은 기회를 버려두고 공론만 일삼는 무리를 크게 미워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부원개발을 중시했다.

다음 유망사업 안내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일본이 러일전쟁 이후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어가는 “정치권의 확장”이 이미 단행되어가기 때문에 실업가

32) 靑柳綱太郎, 1905, 위의 책, 「濟州道經營」 제1 交通經營, 94~95쪽.

33) 靑柳綱太郎, 1905, 위의 책, 「濟州道經營」 제2 漁業의植民, 100~101쪽.

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한국의 부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척 방면에 대해서는 북한설과 남한설이 있지만 자신이 남한설을 지지하는 근거로 첫째 일본에의 근접성, 둘째 비옥한 지질, 셋째 일본과 같은 기후, 넷째 해면에서의 접근성, 다섯째 교통의 편리성 때문이라고 한다.³⁴⁾ 경영지역으로는 영산강, 금강, 낙동강 유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는데 그 이유는 이들 지역의 생산고가 한국 총생산고의 5분의 3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아오야기는 특히 영산강 유역이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라고 보았다. 유명한 쌀 산지이고 토지가 기름진 것도 규슈지방 못지않아 농업상 양호하기 때문이다.³⁵⁾ 양잠업과 면화재배도 유망한 곳이며, 특히 제염업은 장래 유망한 사업의 하나로 중요하다고 진단했다.³⁶⁾ 그러나 상업상으로 영산포가 중요함³⁷⁾에도 아직 일본인이 장악하지 못해 한국 상인에게 농단당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전승국 상인은 현하(現下)의 호시기를 버려두지 말고 크게 용진분약을 시도해야 한다”고 치밀한 대책 수립을 주장했다.³⁸⁾ 그러면서 적당한 이주지를 찾는 중요 포인트는 시찰원이 유망한 지역을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관광적 여행에 그쳐 誤謬 皮相의 관찰로 끝난다. 본방인을 잘못

34) 靑柳綱太郎, 1906, 『南韓之實業』, 제1장 緒言, 靑山嵩山堂, 1~3쪽.

35) 靑柳綱太郎, 1906, 위의 책, 제2장 農業上の地位, 5~7쪽.

36) 靑柳綱太郎, 1906, 위의 책, 제3장 養蠶業の好望, 28~29쪽, 제4장 棉花の好望, 3~33쪽, 제5장 製鹽業の好望, 63~64쪽.

37) 靑柳綱太郎, 1906, 위의 책, 제9장 新日本の發展, 126쪽. “현시 영산포 목포 사이에 소증기선이 내주하기에 이르러 이 유역에서 운수교통상 대대한 편의를 증진했다. 이 방면 신일본의 발전에 일 신생면을 열게 되었다. 내지에서 신일본의 건설을 위한 본방인의 증가는 경제적 발전의 단서로 자못 축하할 일이다. 지금 영산포에서 재류본방인은 백 명에 이르러 날로 달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우리 영사관 으로서는 경찰관 주류소를 설치해서 재류민을 보호하게 하고 우편국에서는 수취소를 개설해서 통신의 편리를 주게 된다면 재류민은 안도하여 다만 一途에 이익선의 확장에 애쓰게 될 것이다.”

38) 靑柳綱太郎, 1906, 위의 책, 제6장 商業上の地位, 87쪽.

이끄는 것이 적지 않으니 어찌 개탄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금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귀족적 관광자가 아니다. 적어도 수개월간 내지를 다니며 한인의 집에 누워 한인의 음식을 먹는 평민적 시찰자가 아니면 안 된다. 거류지를 살펴서 바로 내지의 실정을 단정하는 것은 문을 들여다 보지 않고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³⁹⁾

라고 하여, 아오야기는 시찰원의 피상적 관찰로 내지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식민의 근거지로 매우 호망한 지역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신속하게 부원을 개발해서 경제적 실력을 갖추는 것이 최대 급무라고 보았다.

이처럼 영산강 유역은 농업, 상업은 물론 공업상 유망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는 전후경영책의 하나로 이 지역에 공장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유는 이 지역이 면화 산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를 가공하여 제작한다면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고, 여기에 한인의 저렴한 노동임금이 국가경제에 공헌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⁴⁰⁾ 이 밖에도 영산강 연안의 물자 집산지인 목포를 제2의 상하이[上海]로 주목했고 나주, 광주를 ‘신일본’ 건설의 근거지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부원개척의 방법으로 제안한 것은 호남철도 부설과 섬진강 개항, 관세폐지다. 첫째, 전라도는 한국의 보고로 이 지역의 부원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육상철도를 부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부철도의 지선을 연장하여 호남철도가 전주, 나주 등지로 통과한다면 일한무역을 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39) 靑柳綱太郎, 1905, 위의 책, 제1장 緒言, 「好個の移住地」, 4쪽.

40) 靑柳綱太郎, 1905, 위의 책, 제7장 工業上の地位, 86~87쪽. “우리들이 공장 설치를 촉구하는 이유는 국가경제상으로 보더라도 전후경영의 대책에서 말하더라도 우리 공업가의 수완을 펼칠 긴급사가 아니겠는가. 한인은 풍요한 면화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지식 연구에 부족하고 이들은 起業할 용기가 없다. 다만 아방인이 와서 경영하려는 것을 기대하고 혹은 합동경영하려고 희망한다. 일단 우리 자본가가 와서 이들 공장을 설치하고 유역일대의 풍요로운 면화원료를 가공하여 제작한다면 상응하는 이익을 거두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여기에 한인의 노동임전이 저렴한 것은 이들 사업의 경영에 많은 편익이 있다. 이것은 우리 업자의 독점 이익일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공헌하는바가 지대한 것이 아니겠는가. — 우리는 본방 사업가가 빨리 와서 이 사업 경영에 착수하기를 절망한다.”

수 있다.⁴¹⁾ 둘째, 섬진강의 부원을 개척하는 것은 여수의 순천반도 일각에 있으면서 대양과 마주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진구[神功]황후가 삼한 정벌 이래 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한일 간의 왕래가 밀착된 지역으로 중요하다. 경제적으로도 이곳은 수심이 깊어 2천 톤 이상의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으므로 무역신장을 위해 신속하게 개항할 필요가 있다.⁴²⁾ 아오야기는 섬진강 유역은 교통이 불편한 사정 때문에 이 지방의 실력을 내지인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해 안타깝다는 사정을 토로하고 있다.⁴³⁾ 셋째, 식산흥업의 부원개척을 위

-
- 41) 靑柳綱太郎, 1908, 『韓國植民策』, 제4장 植民と交通, 湖南鐵道敷設論, 30~32쪽. “전라 부원의 개척에서 하나의 새로운 분야는 실로 육상철도의 부설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방의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충분한 활동을 볼 수가 없는 것은 마치 용이 구름을 얻지 못한 것과 같으며 용의 웅대한 특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이유이다. 생각하건대 경부철도는 금강의 상류 대전지방을 통과하는 것을 가지고 동지방에서 지선을 연장하여 전주 나주 등의 요지 혹은 그 부근을 통과해서 그 생산물을吞吐하는 것은 이곳의 부원을 개발하여 일한무역의 振張에 도움이 되며 동시에 일한 양국민이 함께 그 문명의 행복을 입는 유일한 기초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다.”
- 42) 靑柳綱太郎, 1908, 위의 책, 제4장 植民と交通, 蟾津江口開港論, 34~35쪽. “한정부도 그 안공을 크게 해서 종래의 무역항 외의 주요 지역을 개항하는데 용감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지도를 펼치면 강구 여수의 땅 순천반도의 일각에 벽재하여 대양에 면하고 양항만을 이룬 곳으로 기억할만한 역사적 連鎖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神功皇后 振古無比의 女才를 떨쳐서 삼한의 征旅 60일로 매해 80艘의 조공을 넣게 한 이래 백제에서 순천과 일본과의 관계는 자못 밀접한 것으로 당시의 통상무역상 특필할 만한 지점이다. 혹 논자가 당시 인종의 혼합 습속의 감염 우리 동포가 사는 구역이라고 하는 설의 진부는 지금 묻지 않는다. 요컨대 이 지방이 피아의 사이에 있는 교환왕래의 밀착함을 아는데 어렵지 않은 것이다.”
- 43) 靑柳綱太郎, 1908, 위의 책, 40~41쪽. “호남의 땅은 반도의粹이고 반도의 보고이다. 남부는 영산강이 옥원 부토를 감싸고 북은 섬진강을 둘러싸서 부원이 마르지 않고 천연의 유리가 산야에 충만하다. 더구나 지나가 호남을 오랫동안 봉쇄한 것처럼 종래 인사가 이 지역에 소홀하여 충분한 개발을 보기에 이르지 않았다. 근시 남부 영산강 유역이 급격한 개발을 보기에 이르렀어도 섬진강 유역은 여전하다. 이것은 교통이 불편한 사정에 의한 것이지만 이 지방의 실력을 파악하여 충분히 강호에게 설명할 여유가 新報子(목포신보를 말함-인용자)의 역량에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지 신보자에 한한 것은 아니다. 한국 각지의 신문은 모두 그렇다. 금일 각 거류지가 善美한 발달을 이룬 것은 바로 그 거류지에서 경영하는 신문이 지도하고 교훈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있다.”

해서는 관세를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다. 특히 해관세는 일한무역의 장애로 유해무익한 것이라고 한다. 일한무역품을 조사해 보더라도 의외로 일본 상품이 장식된 것이 적다. 담배와 성냥류 외에는 면사류와 금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구미나 청국의 수입품에 비해 일본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파악했다.⁴⁴⁾

이와 같이 일본인이 이주하여 개척한 ‘신일본(고향)’은 일본의 경제적 근거지가 되고 일본의 이익선을 확장한 것이다. 일본의 국시인 ‘팽창적 일본’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을 경영근거지로 삼는 것은 동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최대 급무였다. 아오야기는 제주도에 대어촌을 설립하고 농업경영을 하여 일본의 과잉인구를 이주시킬 것을 제안했다. 유망지역으로는 영산강, 금강, 낙동강 유역을 선택하고 부원개척의 방법으로 호남철도 부설과 섬진강 개항, 관세폐지를 주장했다.

2_경성 개발론

아오야기는 ‘신일본’ 건설의 근거지로 농촌이나 어촌뿐 아니라 경성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지정학적으로 경성은 정치상·경제상 장래 발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경성의 일본 거주민은 영주할 관념이 없고 영구적 시설도 없는 상태라고 개탄했다. 일시 출가해서 목전의 이익을 노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경성을 일본의 제2의 고향인 ‘신일본’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신찬경성안내(新撰京城案内)』(1913), 『최근경성안내기(最近京城案内記)』(1915)에서 정리했다.

44) 靑柳綱太郎, 1908, 위의 책, 제6장 植民と商業, 93~96쪽. “해관세는 일한무역의 일대 장애로 유해무익한 것이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관세폐지는 실로 근래 우리 실업가의 여론으로 또 흥미있는 연구제목이다. — 관세는 한국의 수입 중 첫째 돌짜를 다투는 호 財源으로 따라서 폐지문제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논할 필요도 없다. — 아아 식민의 풍조 지금 점점 왕성해져 본방이민은 날로 달로 증가하려고 하는 이즈음 신속하게 관세 폐지의 간판을 내걸고 식산흥업의 실을 올려 부원의 개척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경성을 주목했다. 경성에는 경제적 대도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성은 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경부철도, 경의철도, 경원철도, 호남철도가 전부 개통된다면 여러 사업이 발흥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성의 경제적 가치는 토지의 지가를 보더라도 교토나 오사카 지역과 다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신일본' 건설을 위해서 경성 부근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성에 와서 토지·가옥을 매수하려는 사람을 위해 토지매매 상황을 기록하여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⁴⁵⁾

다음 아오야기는 조선에서의 경제적 발전이 더딘 것에 대해 총독부의 통치 및 경비탕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비난하는 자가 많지만, 이것은 총독부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인 청년 실업가가 기개를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즉 실업가들이 독립정신이 부족해서 총독부의 비호에만 의지하여 편안한 계획만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성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 실업가, 자본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리 청년 실업가 및 자본가 제군에게 경고한다. 우리 충용한 武人이 3척의 검을 가지고 얻은 대륙반도의 지반은 제군이 경제상의 수원을 펼쳐 착실하게 개척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처럼 이것을 관부에게만 의뢰하여 식민의 발달 지반의 정비조차 헌병 군인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은 실로 기개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저들에게 빵을 주면 순량하고 가련한 민이다. 우리 실업가가 일업을 일으키고 일사를 기획하여 저들을 사역시키면 저들은 유화한 노동자이다. — 반도 민족과 같이 제어하기 쉬운 자는 세계 어디에서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 어디에 이 양과 같은 민족이 있겠는가.⁴⁶⁾

45) 靑柳綱太郎, 1913, 『新撰京城案内』, 「京城及附近土地賣買の狀況」, 69쪽.

46) 靑柳綱太郎, 1913, 위의 책, 「京城の日本人」, 120쪽.

아오야기가 『신찬경성안내』를 저술한 목적은 경성을 “대륙의 대도시이자, 제2의 도쿄로 발달시켜 향후 동서남북으로 확장해 가게” 하고, 경성의 발달이 일본인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압박과 주구(誅求)에서 고통을 받던 “상가(喪家)의 개와 같은 불쌍한 조선인”을 구제해준 것은 총독 정치며 이러한 신정(新政)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정치상에서 저들은 하나의 무덤이다. 이렇게 저들은 一代의 間蟲처럼 그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 놀라울 정도로 불쌍한 사회는 통감정치를 거쳐 총독정치가 되어 일한 드디어 一家國이 되어 일본인과 같이 一躍해서 仁政을 입고 자유의 권리를 얻기에 이르러 관리가 되는 것을 얻고, 부귀를 얻어, 가옥 음식 의복 등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저들의 희망 저들의 욕구를 다시 지장받는 것이 없게 되었고, 저들은 우리 聖上을 동방의 요순으로 구가하고 신정의 감사를 느끼기에 이르렀다.⁴⁷⁾

또한 그의 조선인에 대한 평가는 조선의 민요 아리랑에 대한 논평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아리랑을 ‘조선의 망국가’라고 정의하여 “조선인은 놀랄 만한 노쇠병에 걸려 모두가 패기가 없고 생기가 없으며 안일을 탐하고—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고안도 없다.—조선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생기와 패기가 없게 한 것은 확실히 조선의 국가, 아니 1천 2백만의 민중이 제창하는 일 속가(俗歌)에 기인한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의 시적(詩的) 견해만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노래를 “무기력, 무기개를 선동하는 구절”이라고 평하고 있다.⁴⁸⁾ 조선인이 무기력하게 된 것이 아리랑을 제창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성 개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겼는지 살펴보자.

먼저 경성 개발에 필요한 것은 조선인을 동화시켜 악습을 개조하는 일이 급

47) 靑柳綱太郎, 1913, 위의 책, 2. 現今の朝鮮人, 133~134쪽.

48) 靑柳綱太郎, 1913, 위의 책, 「京城の朝鮮人」, 131~132쪽.

선무라고 보았다. 그가 폐기할 악습으로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망건을 폐기해야 한다. 망건은 뇌의 발달을 저해하고 흑관(黑冠) 1개가 채소밭 1두락에 필적하는 비싼 것이기 때문에 파손될까 우려하여 움직임이 민첩하지 못하게 된다. “선인의 태도가 게으르고 유약하며 모두 민첩하지 못한 것은 이 파괴되기 쉬운 모자에 충성한 결과”라고 보았다. ② 고춧가루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인이 아편에 중독되었다면 조선인은 고춧가루에 중독된 국민으로 국민건강이 손실을 입었다고 말한다. “뇌가 몽롱하여 치밀함이 빠지고 판단력, 발명력 등이 부족한 것은 다량의 고춧가루 때문”이라고 보았다. ③ 흰옷을 개량해야 한다. 조선인은 게으르기 때문에 흰옷을 입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흰옷이기 때문에 노동을 기피하고 상당히 안일하게 지내 의복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다.⁴⁹⁾

다음 경성을 경제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일본 상인이 일본인만을 고객으로 상업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여, 일본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지 상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조잡한 물건을 비싸게 팔고, 못된 꾀로 조선인을 속이며, 수요품의 선택에 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⁵⁰⁾ 둘째, 경성 부근의 농업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 많은데,⁵¹⁾ 조선이 완전한 농업국으로 변장하는 데는 제방(堤防), 언지(堰池)의 개수가 긴급한 일이

49) 靑柳綱太郎, 1913, 위의 책, 2, 現今の朝鮮人 139~149쪽.

50) 靑柳綱太郎, 1915, 『最近京城案内記』, 제5편 京城の商業, 조선연구회, 43~45쪽.
 “—금후 선인의 기질에 적응하여 선인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아직 후미지고 먼 곳에서 일본품을 볼 수 없는 모양인데, 구미 청국의 수입품 중 견포, 견사, 금건 기타 기계류의 대부분은 각 시장 도읍 산촌 벽지 가는 곳마다 있어서 고객을 끄는 것이 많다. 우리는 우리 경성의 상업가 아닌 재선의 상업가가 크게 발본 노력해서 우리 商線을 내지 각 방면으로 확장시킬 것을 희망하여 마지않는다.”

51) 靑柳綱太郎, 1913, 앞의 책, 「京城附近の農業」, 202~203쪽. “경성 아닌 조선의 일본인은 이미 조선농업의 유망함을 알고 있다. 오히려 다른 업종에 속하는 내지인은 상당히 조선농업에 대해 空寂한 의논을 하는 자가 있다고 들었다. 이것은 기차 여행이 만연한 관광적 시찰자에게 잘못 알려진 결과일 뿐 유감이다. 조선은 땅이 피폐하고 척박해서 농사에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외용을 본 시찰자의 보고이다.”

다. 그리고 권업모범장, 원예모범장, 면화재배소, 종묘장을 설치하여 지도와 강화를 실시하고 농림학교, 여자잠업강습소를 설비하여 개량지도에 힘써 조선을 경영해야 한다.⁵²⁾ 셋째, 이주 식민의 최대 급무는 동양척식회사(이하 동척)를 통해 이주를 장려하여 일본 인구의 증식과 동방경영 대책을 세워야 한다.⁵³⁾ 넷째, 경성에서 농업에만 집중하여 공업을 도외시하는 문제를 지적하여 공업계의 전도를 위해 먼저 사람을 양성해야 하며 직공도제 교육의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유망한 방적, 기직 등의 대공장을 경성에 설립하여 조선 전국의 수용을 경성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⁵⁴⁾

이처럼 아오야기는 경성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경성을 발전할 자격이 구비된 곳으로 다시 강조했다. 그리고 각종 철도의 개통과 한강, 임진강 수운(舟運) 연결의 편리함, 중국 산둥과의 연결, 통상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제안하며 모국의 인사를 수용할 길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⁵⁵⁾

52) 靑柳綱太郎, 1913, 위의 책, 204~205쪽.

53) 靑柳綱太郎, 1913, 위의 책, 「東洋拓植會社と京城」, 214~216쪽. “지금 조선의 농사는 우리 농민의 이주에 의해 발전의 걸음을 진행시켜 그 현상이 자못 현저한 것이 있다. 干戈를 가지고 빼앗은 방토는 망하는 것이 있어도 鋤犁(호미와 쟁기)를 가지고 경영한 방토는 망하는 일이 없다. 조선경영의 대주의 대정신은 이 격언에 따라 호미와 쟁기를 취하여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개 조선경영의 착실한 발전 조선농사의 발전은 견실 소박한 일본 내지 다수 농민의 이주경영에 의해 비로소 실제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우리 동척의 임무가 어찌 중차대하지 않은가.”

54) 靑柳綱太郎, 1915, 앞의 책, 제6편 京城の工業, 66쪽.

55) 靑柳綱太郎, 1915, 위의 책, 제8편 京城の地價, 87~88쪽.

IV. 식민정책 비판과 '대일본주의' 실천 방안

1_농업이민과 이주 식민론

아오야기는 일본인이 이민에 소극적인 이유는 일본 정부, 데라우치 총독의 이민정책과 일본 국민의 전통적인 '도국사상(島國思想)'이 일본인을 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성패는 농촌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조선 통치의 근본대책의 하나로 농업이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가 농업이민을 등한시한 점도 비판했다. 즉 막대한 경비를 들여 내지인을 오라고 선전만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농업이민의 방법으로 농업출신의 재향군인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⁵⁶⁾ 또한 그는 『일본서기(日本書紀)』를 근거로 스사노오[素戔嗚尊]의 아들 이다케루[五十猛命]가 단군이라고 보며 시오노리쓰히코[鹽乘津彦命]는 김수로왕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⁵⁷⁾ 그러면서 일본에서 처음 조선에 건너와 살게 된 일본 신족 스사노오가 강원, 충청을 왕래한 것과 시오노리쓰히코가 임나를 경영한 것, 일본인 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한 것처럼 40만 명의 일본인이 조선에 살아도 대부분이 상업이민과 관리라는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종래 일본의 식민발전은 대부분 상업식민으로 이루어져 농업식민을 무시해왔다고 이해했던 것이다.

56) 靑柳綱太郎, 1928, 『總督政治史論』, 文化政治時代, 제11편 植民의同化論, 128쪽. “그렇다면 당국의 조선인 동화정책은 농업적 이식민을 행하여 순박한 농촌부터 먼저 융합과 동화의 봉화를 올려, 점차 민족적 위력을 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농민이식이라고 해도 보통 농민보다는 농업출신의 재향군인을 환영한다. 이들 재향군인은 평소 유순하고 근면한 농부라도, 일단 조선이 소요 중에 빠지면 屯田이민같이 우리 재향군인은 국가를 위해 일어나 鮮民의 同村 隣保를 경계하여 과오와 우매한 거동을 멸망시킬 수 있다.”

57) 靑柳綱太郎, 1926, 『朝鮮史話と史蹟』, 「檀君神話」, 1~6쪽; 靑柳綱太郎, 1926, 위의 책, 「日本の皇族金首露王の廟」, 19~24쪽.

아오야기가 이주 식민의 방법에 대해 『조선통치론(朝鮮統治論)』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⁵⁸⁾ 먼저 아오야기의 이주 식민론과 데라우치 총독의 ‘개발’론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아오야기는 데라우치의 무단통치로 동화를 달성하는 것은 고대 ‘지나(支那)’가 조선 정책에서 실패한 원인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 민족의 동화는 우수한 일본 민족 다수의 힘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이주 식민을 주장한 것이다. 아오야기는 빠르게 동화를 달성하고 경제력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키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처럼 아오야기가 이주 식민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동화는 경제적 동화를 이룬 뒤에야 가능하고, 이는 일본인의 이주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선의 토지는 일본과 인구밀도로 비교해보면 10분의 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넓으며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보고임에 틀림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데라우치는 아오야기가 제안하는 이주 식민론에는 반대하고 ‘개발’론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일본인 소자본가나 무자본가, 낭인(浪人)이 조선에 이주해오거나, 대자본가가 와서 토지를 겸병하게 되면 대지주의 발호로 지방의 경제발달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경지를 매수해서 일본인이 증가하면 조선 사람에게 불안을 준다고 이주 식민을 반대했다. 이에 대한 아오야기의 비판을 살펴보자. 그는 이민정책이 동척 창설 이후의 큰 동화사업인데도 데라우치는 동화의 주체를 동척이민 혹은 자유이민에 두지 않고 오로지 관헌의 무력과 개발에만 의지했다고 보았다. 이렇게 동척을 위축시키고 동화 달성을 관헌의 힘에만 의지한 것은 데라우치의 실책이며 어리석은 정책이므로 적극 동화책과 경제적 동화책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오야기는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인이 이민 와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조선 사람은 토지를 방매한 뒤 황무지를 사서 개척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 민족적 팽창은 세계적 추세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과감하게 이주 식민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58) 靑柳綱太郎, 1923, 『朝鮮統治論』, 제7편 朝鮮人同化問題, 제5 民族の偉力を用ゆる同化策, 136~138쪽.

그리고 아오야기는 동척이민이 실패한 원인은 산재(散在)이민에 있으므로 가능하면 남부 지방에 집단이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조선의 농촌이 앞으로 3~4년 내에 황폐해질 것이고 이는 조선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도 일본 정부가 농업이민에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개량과 산미증산계획도 총독부 당국의 고려와 시설이 형편없고 실행이 수반되지 않아 실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아오야기는 데라우치의 무단통치에 대해 비판하면서 “각하가 신부민(新附民, 조선인)을 애무해서 모국민과 같이 급격하게 문명화시키고 혹은 일선민에게 대등한 생활을 시키는 것은 장차 민족 저항의 위험한 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아오야기는 데라우치의 거듭되는 반대에도 조선인의 동화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즉, 일본인의 조선 이주는 오히려 조선인을 빠르게 동화시키고 조선 사람에게 산업적 경쟁심을 일으켜 게으른 사회를 발달하고 생기 있는 경제 산업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데라우치의 우려처럼 일본인의 이주로 조선인이 위축 쇠퇴하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한다. 조선은 일본에 비해 개척하고 경작할 만한 지역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의 인구·경제정책에서 검토해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3·1운동이 일어난 원인도 데라우치가 이주 식민 반대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주 식민문제를 중시했다.

이와 같이 아오야기는 조선 통치를 위해서 동화문제가 중요한데 그 방법으로 이주 식민을 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여겼다. 동화는 정치적인 동화만이 아니라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켜 경제적 동화와 사회적 동화를 이루는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화정책의 원칙만을 고집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대영제국도 식민지에 본국과 같은 동화를 시행하려고 하여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나(支那)’의 경우도 강대한 문화를 가지고 조선 통치에 힘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동화보다는 이주 식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_ '대일본주의'의 실현과 대륙경영론

아오야기는 전술한 것처럼 식민정책을 비판하면서 데라우치의 '개발'론 보다는 이주 식민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주 식민은 '대일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적국 독일에게 배우자, 둘째, 야마토혼[大和魂]을 교육시키자, 셋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정신을 배우자. 이렇게 해서 조선에서 '대일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일본의 대륙경영과 침략의 발판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그는 적국이지만 독일에게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독일인은 군사·경제상으로 '지나'를 초차한 것이 산둥[山東]지역에 불과했지만, 자오저우만[膠洲灣]을 점령하고 상업근거지로 삼은 뒤로는 '지나' 전성(全省)에 걸쳐 독일 상품이 공급되고 4백여 주 전체를 독일의 상업권 내로 삼을 수 있었다. 이것은 독일의 관민이 일치단결하여 독일혼을 발휘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아오야기가 적국인 독일에까지 배우자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일본의 커다란 야심이 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세계통일을 향한 꿈이었다.⁵⁹⁾

그런데 아오야기는 일본인이 독일인보다 우수한 야마토혼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선 경영에서 군사상은 물론 경제상으로도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데도, 독일과 달리 관민이 반목하고 단결심이 없으므로 그 결과는 그리스·로마·인도와 같이 국민도덕이 추락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조선에 있는 일본 청년

59) 青柳綱太郎, 1918, 『總督政治』, 제29편 與朝鮮士民書, 조선연구회, 558쪽. “전후의 순 일등국은 일, 영, 미, 독의 4국이 될 것이다. 또한 4국 중 최후의 전쟁으로 드디어 세계를 통일할 雄邦이 있을 것이니, — 세계 통일의 이상은 공상이 아니다. 인종과 종교언어를 달리하는 비웃는 자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이 필시 망상이 아니다. — 일, 영, 미, 독이 그 역사를 연구하고 그 지리를 성찰하며 그 실력에 이른다면 우리 일선민의 협력 동화 일치의 전도는 실로 多忙하다 할 것이다. 다망한 전도에 우리를 막는 것은 국력의 증진이다. 국력의 증진은 먼저 경제적 발전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불가하니, 환연하면 국가의 부력을 증대치 않고는 무비의 힘을 이것에 활용하기 불가능하다. 일찍이 평화론을 狂唱하던 대국도 지금 군비 확장에 부심하는 중인 고로 우리 일본도 역시 적당히 군비의 확장을 위함은 의심할 것이 없다.”

은 선조가 선혈을 흘려 개척하고 발전시킨 곳이 조선임을 각성해서 민족 팽창의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식민주의 실현을 역설했다. 아울러 조선 병합, 만주 경영은 일본인이 야마토혼을 '병전상에 휘날린 보답이 아니겠는가'라고 묻는다. 이 보답에 따라 일본인은 경제적 기반을 대륙에 개척하고, 이민을 부식하여 현실을 통해 '대일본주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⁶⁰⁾

둘째, 조선인에게 야마토혼이 담긴 〈교육칙어〉를 보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대일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선인'이 동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동화는 조선 사람을 '천황의 적자'로서 손색이 없는 우량한 신민이 되게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처음부터 내지와 같은 교과서와 일본어를 가지고 〈교육칙어〉를 보급시켜⁶¹⁾ 야마토혼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조선 역사가 얼마나 '불쾌하고 험악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망국이 된 이유를 밝히는 것이 교육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오야기는 병합 후에 데라우치 총독이 조선인이 위협사상을 가질까 염려하여 조선사를 배우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조선사는 “지나의 책봉과 간섭정치와 침략유린, 소수 귀족의 투쟁정치, 주구(誅求)정치, 음모와 암살의 역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여겼다.⁶²⁾

아울러 '내선인' 동화를 위한 정략적 교과서를 편찬하여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학생시대부터 알게 하여 동화를 빨리 달성하는 것이 교학상의 방편이라고 주장했다.⁶³⁾ 그리하여 조선인에게 신화시대 이래 신라 건국, 임나금관국의 창설, 탐라왕국의 창설, 왜구의 도선(渡鮮)과 삼포이민으로 일본인과 혈맥이 동화

60) 靑柳綱太郎, 1923, 앞의 책, 제39 大日本主義と在鮮日本人, 조선연구회, 817~818쪽.

61) 靑柳綱太郎, 1923, 위의 책, 제23 朝鮮統治と教育, 8, 教育勅語普及論, 480~483쪽.

62) 靑柳綱太郎, 1925, 『新朝鮮』, 제9 混沌たる教育政策 「朝鮮の人人に先づ朝鮮の歴史を讀ましめよ」, 131~133쪽.

63) 靑柳綱太郎, 1935, 앞의 책, 제2편 先づ内鮮一家の史實を論述す, 18. 「内鮮一家史實の後に論ず」, 東亞同民協會, 260~263쪽.

된 사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당국은 동화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을 왕성하게 하여 조선 인민을 교화시키고 사상을 선도하여 민족성을 개조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이 “일본 국가주의를 수행하기 위해 조선제신(祖先諸神)의 포부를 실현하여 대륙에서 대일본을 건설하는데 당연한 사업”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⁶⁴⁾

셋째, ‘대일본주의’를 실현한 모델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공적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도요토미의 조선 정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그는 도요토미의 조선 침공은 고려 때 여몽 연합군의 두 차례의 일본 정벌 때문이라고 보았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강요에 따라 여몽 연합군이 1274년과 1281년에 일본 정벌을 단행한 적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를 각각 ‘분에이[文永]역’, ‘고안[弘安]역’이라고 부른다. 고려군과 몽골군은 삼별초 토벌을 끝낸 뒤 일본 정벌을 준비했다. 원이 일본을 정벌하려던 까닭은 일본이 원을 정벌하려는 남송과 무역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세조 쿠빌라이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명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저항했다. 고려는 원나라가 요구하는 일본 원정을 거부하면 고려 왕실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협력하게 된 것이다. 두 차례의 정벌은 결국 태풍을 만나 실패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고려와 일본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훗날 왜구의 잦은 침공으로 한반도 해안이 유린당한 것도 이 원정이 실패한 데 따른 후유증이었다. 아오야기는 도요토미가 당시 일본 무사의 현안이었던 분에이·고안역에서 몽고의 침략에 대한 복수를 위해 자신이 살아 있을 때에 ‘대일본주의’를 결행하려 한 것이라고 보았다.

히데요시는 스스로 明主가 되고 조선 왕이 될 야심의 외정이 아니고 근왕애국의 발로 외에 아니다. 조선은 일본과 일의대수의 이웃이다. 후세 다시 원의 쿠빌라이 같은 대왕이 나온다면 언제 일본을 정벌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히데요시는 일면에서 일본 국가의 전도를 걱정하는 것이

64) 靑柳綱太郎, 1925, 앞의 책, 제5 內鮮人同化難, 65쪽.

심해서 국가의 기초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사기가 흥분하여 기운이 무르익었을 때에 우리로부터 이것을 쳐서 일본제국 만전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였다. 결코 만연히 외방을 침략해서 영웅적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외정이 아니었다.⁶⁵⁾

이처럼 아오야기는 도요토미가 명나라나 조선의 왕이 될 욕심에서 외정을 벌인 것이 아니고 애국주의의 발로에서 일본이 정벌당하지 않기 위해 '대일본주의'를 결행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한병합, 만주경영의 연원도 도요토미의 외정과 같은 즉 '대일본주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는 도요토미를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부처의 분신과 같은 영웅, 팽창적인 일본 민족의 정신을 가장 맹렬하게 발휘한 자라고 평가한다. 일본 국민은 이를 본받아 진취적인 기상을 가져야 하며 대륙에서 그 진가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⁶⁾

정한역은 즉 다이코[太閤, 도요토미를 말함]의 대륙에서의 활극사로 그 반면은 실로 우리 민족의 팽창전이다. 세상의 부유 자칫하면 정한역을 가지고 다이코가 함부로 武를 욱되게 한 자라고 꾸짖는다. 우리는 다이코는 시대정신의 權化(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부처의 분신)로 팽창적 일본 민족의 정신을 가장 맹렬하게 발휘한 자라고 말한다. 대개 국민된 자는 항상 진취의 기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에게 진취의 기상이 없으면 그 나라의 쇠퇴를 의미한다. 역사는 지금 눈앞의 우리에게 입증한다. 일한의 병합이 이루어져 소위 '兵氣銷成日月光(전쟁 없는 세상에 일월이 더욱 빛나네)'한데 그 연원의 깊이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父祖의 시대에 병전상에 빛나는 진취의 기상은 지금 통

65) 靑柳綱太郎, 1926, 앞의 책, 「豊太閤征韓史話(4)」 3, 征韓論評, 214~216쪽.

66) 靑柳綱太郎, 1917, 『朝鮮四千年史』, 「豊臣秀吉朝鮮を侵す」, 조선연구회, 78~79쪽.

상상에 무역상에 그리고 이민사업상에 대륙에서 평화적 경영상에 진취의 기상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비로소 영웅의 소지를 관철하는 것이다.⁶⁷⁾

아오야기는 일본의 이주 식민은 조선에 경제적 근거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복이 아니라 ‘대일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조선을 야마토 민족의 영원한 경제적 근거지로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이 조선에 ‘대일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야마토혼의 대포부를 세계에 펼치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⁶⁸⁾

그는 조선은 야마토 민족이 대륙으로 나가는 발판이 되므로 조선을 경영하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본다. 이제 일본이 조선으로의 이주 식민을 달성하게 되면 일본의 민족적 위력을 가지고 조선 문화의 향상을 이루게 되어 조선 개척의 실적도 올릴 수 있다. 앞으로 30년, 50년 사이에 ‘내선인(內鮮人)’이라는 호칭은 철폐되고, 통혼을 통해 ‘내선인’이 하나로 동화되어 ‘내선인’은 ‘대일본인’으로 동아시아의 천지를 포효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대일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도 반도의 소수민족도 포용 통치할 수 없다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 간의 2,500년 이래의 현안은 이 시대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도국 건아(島國 健兒)’인 일본인은 섬에서 나와 대륙경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도국사상’을 버리고 대륙침략에 나설 것을 주장하면서,

67) 青柳綱太郎, 1912, 『鮮人の記せる豊太閤征韓戦記』, 「序」, 조선연구회, 1~3쪽.

68) 青柳綱太郎, 1923, 앞의 책, 제39 大日本主義と在鮮日本人, 조선연구회, 817~818쪽. “우리는 재선 35만 일본인에게 고한다. 조선은 우리 야마토 민족 대륙발전의 기본지다. 현대의 추세는 제군이 중심이 되어 조선을 경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조선은 타국이 아니고 일본제국의 판도이다. 永住적 기풍을 배양하여 각자 그 경영발전의 근본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병합 이래 14년 물질의 진보 발전은 실로 칭찬할 만하다. 우리 재선 일본인의 思潮 침체와 국민적 도덕의 추락은 실로 놀랄 만한 것이다. 재선일본인은 빨리 각성하여 조선경영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선조에 대해 미안하고 메이지대제[明治大帝]에 대해서도 죄송할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요컨대 아오야기는 일본이 경제적 근거지를 건설하기 위해 이주 식민하는 것은 조선을 정복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 식민은 일본이 조선에 '대일본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며 아마토 정신을 세계에 펼쳐나가는 길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될 자격을 얻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이주 식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국인 독일에게서도 배워야 한다고 여겼다. 아오야기는 도요토미의 조선 정벌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애국주의의 발로에서 나왔고 진취적인 기상을 통해 대륙발전을 도모한 것이므로, 도요토미는 일본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대일본주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평가했다.

V. 맺음말

이상에서는 재조일본인 아오야기의 조선관이 형성된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며 그가 식민지 조선에 '신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겼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오야기가 식민정책을 비판하며 그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 이주 식민론과 '대일본주의'의 실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아오야기는 조선과 역사적 관계가 깊은 사가현에서 태어나 조선에 대한 이해를 가졌고, 메이지유신 이후의 정한 분위기를 체험하며 성장했다. 데쓰가쿠칸에서 이노우에 엔료의 사상적 영향을 받고 도한하여 통감부 관료를 지내고 조선 역사를 왜곡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다.

둘째, 아오야기는 조선 통치를 위해서는 동화문제가 중요하며 그 방법으로 이주 식민이 첩경이라고 생각했다. 동화문제는 정치적인 동화만이 아니라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켜 경제적 동화와 사회적 동화를 이루는 외에 방법이 없다.

이주 식민은 아마토 정신을 세계에 펼쳐나가는 길이라고 여겼다.

셋째, 아오야기는 일본의 이주 식민은 조선을 정벌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일본인이 이주하여 개척한 ‘신일본’은 일본의 이익선을 확장한 경제적 근거지가 된다. 일본의 국시인 팽창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을 근거지로 삼는 것은 동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최대 급무라고 보았다.

넷째, 아오야기는 제주도에 대어촌을 설립하고 농업경영을 하여 일본의 과잉인구를 이주시킬 것을 제안했다. 영산강, 금강, 낙동강 유역을 유망지로 선택하고 부원개척의 방법으로 호남철도 부설과 섬진강 개항, 관세폐지를 주장했다.

다섯째, 아오야기는 경성은 발전할 자격이 구비된 곳이라고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했다. 각종 철도의 개통, 한강과 임진강의 뱃길 연결, 중국 산둥과의 연결, 통상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주목하여 모국 인사를 수용하도록 촉구했다.

앞으로의 후속연구는 재조일본인들이 실제 시찰하고 조사하여 남긴 1차 자료를 분석하여 그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일본인들의 내한활동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南韓之實業』(1906), 靑山崑山堂
 『大京城』(1925), 조선연구회
 『大日本史談』(1929), 조선연구회
 『東洋大學一覽』(1925), 東洋大學
 『東洋大學創立五十年史』(1937), 東洋大學
 『産業の朝鮮』(1925), 조선산업조사회
 『鮮鐵沿線名所史蹟美術大觀』(1919), 만선출판협회
 『新朝鮮』(1925), 경성신문사
 『新撰京城案内』(1913), 조선연구회
 『李朝史大全』(1922), 조선연구회
 『李朝五百年史』(1912), 조선연구회
 『日韓史蹟』(1910), 町田文林堂
 『赤裸裸に見た内鮮史論』(1935), 東亞同民協會
 『濟州道案内』(1905), 隆文社
 『朝鮮國寶的遺物及古蹟大全』(1927), 경성신문사
 『朝鮮獨立騷擾史論』(1921), 조선연구회
 『朝鮮文化史』(1924), 조선연구회
 『朝鮮文化史大全』(1924), 조선연구회
 『朝鮮美人寶鑑』(1918), 조선연구회
 『朝鮮四千年史』(1917), 조선연구회
 『朝鮮史話と史蹟』(1926), 조선연구회
 『朝鮮三綱錄』(1921), 조선삼강목록출판소
 『朝鮮宗教史』(1911), 조선연구회
 『朝鮮統治論』(1923), 조선연구회
 『珠淵選集』(1919), 주연선집출판소
 『總督政治』(1918), 조선연구회
 『總督政治史論』(1928), 경성신문사
 『最近京城案内記』(1915), 조선연구회
 『豊太閤征韓戰記』(1912), 조선연구회

『豊太閤朝鮮役』(1930), 경성신문사

『韓國農事案内』(1904), 靑山嵩山堂

『韓國植民策』(1908), 日韓書房

박훈, 2014,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사.

손정목, 1982,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 연구-개항장·개시장·조계·거류지』, 일지사.

노성환, 2010, 「일본 사가의 조선포로 흥호연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73.

송현주, 2014, 「“불교는 철학적 종교”: 이노우에 엔료의 ‘근대일본 불교’ 만들기」, 『불교 연구』 41.

원영상, 2011, 「근대 일본불교의 서양사상의 수용과 전개-井上円了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67.

이형식, 2013, 「재조일본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학』 37.

전상균·박종현, 2001, 「정한론과 佐賀의 난」, 『일본어교육』 18.

최혜주, 2000, 「아오야기(靑柳綱太郎)의 내한활동과 식민통치론」, 『국사관논총』 94.

최혜주, 2005. 12, 「한말 일제하 샤쿠오(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최혜주, 2006. 12, 「일제강점기 아오야기의 조선사연구와 내선일가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최혜주, 2012. 12, 「개항 이후 일본인의 조선사정 조사와 안내서 간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3.

최혜주, 2013. 6, 「1900년대 일본인의 조선이주 안내서 간행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최혜주, 2014. 12, 「1910년대 일본인의 조선이주 안내서 간행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

今西一, 1997. 1, 「帝國‘日本’の自畫像-1920年代の朝鮮‘同化’論」, 『立命館言語文化研究』 8(3).

小宮陸之, 1996, 「洪浩然と佐賀縣」, 『研究紀要(2)』, 佐賀縣名護屋城博物館.

井上円了, 1920, 「日本主義」, 『哲窓茶話』, 三星社書店.

浦川和也, 2008, 「洪浩然と洪家の系譜-洪浩然 洪家史料の目録と解題」, 『研究紀要(14)』, 佐賀縣名護屋城博物館.

[국문초록]

재조일본인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郎]의
'신일본(조선)' 건설론

최혜주

이 논문은 재조일본인 아오야기 쓰나타로의 조선관이 형성된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며 그가 식민지 조선에 '신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겼는지 분석한 글이다. 그리고 아오야기가 식민정책을 비판하며 그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 이주 식민론과 '대일본주의'의 실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아오야기는 조선과 역사적 관계가 깊은 사가현에서 태어나 조선에 대한 이해를 가졌고, 메이지유신 이후의 정한 분위기를 체험하며 성장했다. 데쓰가쿠칸에서 이노우에 엔로의 사상적 영향을 받고 도한하여 통감부 관료를 지내고 조선 역사를 왜곡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다.

둘째, 아오야기는 조선 통치를 위해서는 동화문제가 중요하며 그 방법으로 이주 식민이 첩경이라고 생각했다. 동화문제는 정치적인 동화만이 아니라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켜 경제적 동화와 사회적 동화를 이루는 외에 방법이 없다. 이주 식민은 야마토 정신을 세계에 펼쳐나가는 길이라고 여겼다.

셋째, 아오야기는 일본의 이주 식민은 조선을 정벌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일본인이 이주하여 개척한 신일본은 일본의 이익선을 확장한 경제적 근거지가 된다. 일본의 국시인 팽창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을 근거지로 삼는 것은 동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최대 급무라고 여겼다.

넷째, 아오야기는 제주도대어촌을 설립하고 농업경영을 하여 일본의 과잉인구를 이주시킬 것을 제안했다. 영산강·금강·낙동강 유역을 유망지로 선택하고 부원개척의 방법으로 호남철도 부설과 섬진강 개항, 관세폐지를 주장했다.

다섯째, 아오야기는 경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면서 발전할 자격이 구비된 곳으로 강조했다. 각종 철도의 개통, 한강과 임진강의 뱃길 연결, 중국 산둥과의 연결, 통상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주목하여 모국 인사를 수용하도록 촉구했다.

주제어

아오야기 쓰나타로, 대아시아주의, 동화, 야마토 정신, 이주 식민, 경성

[ABSTRACT]The Theory of Building the “New Japan” of Aoyagi
Tsunatarō, a Japanese Living in Joseon

Choi Heajoo

This paper examines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Aoyagi Tsunatarō's view of Joseon and what he thought was most important in building the “New Japan” in Joseon. And this paper inquires into the theory of immigrant colonization and the realization of “Great Japanism” that was proposed to plan for its practice.

First, Aoyagi gained an understanding of Joseon as he was born in Saga Prefecture, which was historically linked with Joseon, while he grew up in the atmosphere of the theory of conquering Korea following the Meiji Restoration. Ideologically influenced by Inoue in the Tetsugakukan, he moved to Joseon and distorted the history of Joseon while working for the Residency-General.

Second, Aoyagi thought that assimilation was crucial to rule Joseon. As a way to achieve this he regarded immigrant colonization as a shortcut. Regarding assimilation, he deemed that not only political assimilation but economic and social assimilation should be realized by moving Japanese to Joseon. He considered immigrant assimilation as a way of spreading the spirit of Yamato to the world.

Third, the immigrant assimilation of Japan did not intend to conquer Joseon. The “New Japan” exploited by moving Japanese to Joseon would become the financial base for extending the profit

margin of Japan. He regarded making Joseon the base for the establishment of expansionism, which was the national policy of Japan and the most urgent priority in gaining Japan's supremacy in Asia.

Fourth, Aoyagi suggested establishing fishing villages in Jeju and conducting agricultural management so that Japan's surplus population could move to those villages. He chose the Yeongsan River, the Geum River, and the Nakdong River basins as promising areas and insisted upon building the Honam Railway, opening Seomjin Port, and abolishing tariffs as ways of exploiting sources of wealth.

Fifth, Aoyagi emphasized that Gyeongseong had obtained the qualification for further development,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place. He urged that Japanese celebrities be sent to the capital, and noted the opening of railway routes, the connection of waterways between the Han River and the Imjin River, and the connections to Shandong, China, and that area's roles as a center of trade and commerce.

Keyword

Ayoyagi Tsunatarō, Great Asianism, assimilation, spirit of Yamato, immigrant colonization, Gyeongseong